



THE LAST LETTER

마지막 편지

김선흥 처음

THE LAST LETTER

마지막 편지

김선흥 지음



북
조
선
민
국

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最后一封信 / (韩) 金善兴著. 哈尔滨: 黑龙江朝鲜
民族出版社, 2009.2

ISBN 978-7-5389-1579-2

I. 最… II. 金… III. 随笔—作品集—韩国—现代

IV. I312.66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13389号

书 名/最后一封信

著 者/ 金善兴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柳大植 韩永男

责任校对/ 宋英爱

封面设计/ 郑 哲

印 刷/ 青岛海蓝印刷有限公司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21

字 数/ 260千字

版 次/ 2009年2月第1版

印 次/ 2009年2月第1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579-2 (民文)

定 价/ 49.00元



THE LAST LETTER

마지막 편지

김선훈 지음

‘마지막 편지’를 시작하며, 마치며

바람이 나의 등을 떠밀며, 이제 가라 한다,
그만 떠나라 한다.
어디로 가야 하나?

‘길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고 했던가?
‘길은 끝난 곳에서 다시 시작
된다’ 고도 했던가?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의 중국생활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1982년 중국 타이베이에서 중국어 연수를 하는 것으로 나는 중국과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그 뒤 20여 년이 지나도록 중국과 나는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인연이 다시 이어질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운명의 신’ 다시 말하여 ‘외교부 인사과’에서 나를 상하이로 보내면서부터 중국과의 인연이 다시 맺어졌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두 해 반은 상하이 부총영사로, 나머지 두 해 반은 칭다오 총영사로 일하는 행운을 누렸다.

나는 웬지 중국이 무척 좋다.

누가 중국을 욕하면 화부터 난다. 한중 운동경기가 있을 때, 서로 비기면 나는 마음이 편해진다. 한국이 지는 것은 물론 싫고, 중국이 지는 것도 싫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생각해 보았다. 나의 이러한 ‘不穩한 痴情’은 어디서 유래된 것일까?

이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나의 두 자식이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첫째 아이만 서울에서 태어났고, 둘째와 셋째는 모두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공기를 마시며 자랐다.

그동안 일했던 외국 나라들도 많은데, 왜 하필 중국에만 왔다 하면 아이가 하나씩 생기는 것일까? 참 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아이를 나에게 선물해 준 중국이 나는 늘 고맙다.

나는 늘 소망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더욱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서로 윈윈의 비단길을 개척하게 되기를. 우리의 후손들도 앞으로 오래오래 중국인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다.

사랑하는 나의 영사관 동료들, 그리고 고마운 동포들에게, 다 정했던 중국인들에게, 먼 길을 가야 할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나의 서재발치에서 늘 철썩거리던 목마른 파도에게도, 고개 들면 언제나 눈 안에 가득 차오르던 라오산 그리메에게도, 이제 안녕을 고해야 겠다. 떠나는 길에 여기 '마지막 편지' 한 권을 남기고 간다.

지난 몇 해 동안 나는 늘 새벽 서너 시 어름이면, 유령처럼 잠

자리를 빠져 나와 서재에 들어, 읽고, 낙서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운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일찍 돌아가게 되었다. 길 떠날 준비를 서두르면서, 그 동안 썼던 낙서 부렁이들을 다 쓸어 모아 버리려 하니 어쩐지 좀 허전한 감이 들었다.

그래서 만용을 부려 책을 내보기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나의 어리석은 과욕과 만용이 결혼하여 엉겁결에 세상에 나온 早産兒라 할 수 있다. 이 조산아에게 나는 좀 미안하다. 몸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은 주로 옛 이야기이지만,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성한 데가 많겠지만, 그동안 나를 깨웠던 술한 새벽 시간들의 편린이나마 글 갈래 속에, 혹은 행간에 담아 보는 것으로 애써 자족하고자 한다.

필자는 글속에 더러 faction(fact+fiction)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다. 물론 모두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것들이다. 책 속에는 또한 狂想의 소산물도 더러 있다. 정화와 하원길의 몽중 대화, 후추의 독백, 중국의 해적 임도건과 영국의 드레이크, 그리고 표해록을 남긴 조선의 최부와 포르투갈의 항해가 디아스를 한 무대에 등장 시켜 본 것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 편지'는 지식정보나 역사담론을 위한 것은 애초부터 아니다. 오히려 역사 서술이나, 자기주장은 줄이려고 애를 썼다. 그런 것들은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독자들과

같이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가급적 많이 제공해 보려 했으나, 솔직히 얼마만큼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신이 없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책이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책에서 약간이나마 흥밋거리, 감동거리, 생각거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더러는 어리석은 戀書,

더러는 공허한 혼잣말,

더러는 어지러운 狂想에 지나지 않는 글들을 막상 세상에 내놓으려 하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앞선다.

보잘 것 없는 책을 내겠다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 분들의 애정과 열심이 아니었더라면, 이 책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감사의 정을 표시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에 ‘외교관’은 없다.

이제 그만,

붓을 놓고, 입을 닫고, 발길을 돌려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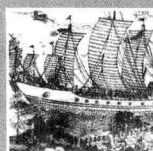
중국여여, 안녕…….

2009. 2. 25.

중국 칭다오에서

• 차례 •

마지막 편지를 시작하며, 마치며	004
주요 등장인물 소개	010
제1장 수몰된 미래	017
제2장 눈물젖은 광채	135
제3장 부활의 꿈	193
제4장 마지막 편지	259
참고문헌	339



• 주요 등장인물 소개 •

정화 (鄭和, 1371~1433)

중국 명나라의 항해가

운남(雲南) 출신의 회족으로, 본래의 성은 마(馬)씨.

명나라의 운남 공격 시 포로가 되어 환관이 됨. 그 후 주체(영락제)의 연왕부에 소속되어 공을 세우고 정(鄭)씨 성을 하사받았으며, 환관의 최고직인 태감이 됨. 영락제의 심복으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일곱 차례의 대원정을 떠나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까지 항해하였음. 정화의의 대원정은 유럽의 대항해시대보다 70년이나 앞선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영락제 (永樂帝, 1360~1424)



명나라 제3대 황제(재위 1402~1424)

본명은 주체(朱棣).

명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로 생모가 조선인이라고도 함. 정화의의 주군으로 북경지역의 변왕인 연왕으로 불렸음. 조카 건문제가 공격해오자 난(정난지역)을 일으켜 황제가 되었음. 환관 정화를 해군 제독으로 임명하여 6차례에 걸친 대항해 사업을 주도하였음.

주원장 (朱元璋, 1328~1398)



명나라를 연 창업군주 (재위 1368~1398)

홍건적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각지 군웅들을 굴복시키고 명나라를 세움. 북벌군을 일으켜 원나라를 몽골로 몰아내고 중국의 통일을 완성. 한족(漢族) 왕조를 회복시킴과 아울러 중앙집권적 독재체제의 확립을 꾀하였고 해금정책을 실시하였음.

하원길 (夏原吉, 1366~1430)



중국 명나라의 대신이자 문학가

강서(江西) 출신.

홍무 연간 태학에 입문하여 호부의 중요사를 맡게 됨. 건문제 시기 호부시랑으로 승진하여 복건(福建) 지역 순방. 성조 시기 좌시랑이 됨. 영락 20년 원정을 반대하다가 강등됨. 후에 하옥되고 가산이 몰수됨. 인종 즉위 후 복직하여 호부상서가 됨. 능력과 업적이 뛰어나 ‘충정(忠靖)’의 시호를 받음. 영락제가 죽자 정화의의 대항해를 앞장서서 반대함. 이 책에서는 정화와 꿈속에서 항해에 대한 일대 토론을 벌임.

방효유 (方孝孺, 1357~1402)

중국 명나라 초기의 학자

절강(浙江) 출신, 호는 손지(遜志).

송염(宋濂)의 문하에 들어가 뛰어난 재주로 이름을 떨침. 1402년 연왕(영락제)이 황위를 찬탈한 뒤, 그에게 즉위 조서를 기초하도록 명하자 붓을 땅에 내던지며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함. 연왕은 노하여 그를 극형에 처하였고, 일족과 친우, 제자 등 847명이 연좌되어 죽임을 당함.



이지 (李贄, 1527~1602)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 문학가

복건(福建) 천주(泉州) 출신, 호는 탁오(卓吾).

운남성 요안(姚安)의 지부(知府)를 지냈으나 54세에 관직을 떠남. 중년 이후에 양명학(陽明學)과 선학(禪學)의 영향을 받음. 만년의 저서와 가르침에서 당시의 도학(道學)을 비판하여 여러 차례 박해를 받음. 임도건 같은 해적도 등용하여 벼슬을 줄 것을 주장함. 장문달(張問達)의 탄핵으로 옥중에서 자살함. 저서로는 『분서(焚書)』, 『속분서(續焚書)』, 『장서(藏書)』, 『속장서(續藏書)』 등이 있으나, 모두 명대에 금서가 됨.



임도건 (林道乾, ?~?)



중국 명대의 해적

광둥(廣東) 또는 복건(福建) 출신으로 알려짐.

밀무역으로 조정의 눈 밖에 나자 관군에 반항하였으며, 전함 50여 척을 앞세우고 활약함. 관군에 패하자 대만 북항으로 후퇴하여 전함을 건조하여 관군을 공격함. 후에 그는 자신이 제조한 대포를 시험하다 폭발로 사망하였다 함. 영국의 드레이크와 같은 시기에 해적 활동을 하였으나 운명의 길은 극명히 대비됨. 이 책에서는 양인을 같은 무대에 등장시켜 비교하고 있음.

최부 (崔溥, 1454~1504)



조선 시대의 문신

호는 금남(錦南).

1487년 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 갔으나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돌아오던 중 풍랑으로 중국 절강성 영파부에 표류함. 반 년만에 한양에 돌아와 왕명을 받고 『표해록(漂海錄)』을 씀. 그는 수차(水車:踏車)의 제작과 이용법을 배워와 후일 충청도 지방의 가뭄 때 큰 도움을 줌. 1504년 갑자사화 때 참형을 당함. 최부가 표류하고 있던 시각에 포르투갈의 항해가 디아스는 희망봉 해역을 항해함. 이 책에서 두 사람의 표류와 항해를 같은 무대에 올려 비교함.

요광효 (姚廣孝, 1335~1418)

중국 원말 명초의 정치가이자 고승

1352년 출가하여 승려가 됨. 법명은 도연(道衍).

유가, 도가, 불가 등 여러 학문에 통달하였으며, 시에도 능통. 당시 명망 있는 고승이었으나 대업 성취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연왕 주체의 중요한 책사가 되어 '정난지역' 때 큰 공을 세움. 후에 영락제가 관직을 내리고자 하였으나 환속하지 않고 태자, 태손의 교육을 맡았으며 『영락대전』, 『명태조실록』 완성에 큰 역할을 함.



엔리케 (Henrique, 13940~1460)

포르투갈의 왕자, 항해가

포르투갈 주앙 1세의 셋째 아들.

1415년 8월 무슬림의 '세우타(Ceuta) 요새 점령작전'에 출전하여 공을 세움. 사그레스에 항해 학교를 세우고 아프리카 탐사 항해를 주도함. 서방의 해양진출을 선도하여 '항해왕' 으로 불림. 또한 노예무역의 아버지라는 오명을 얻음.



드레이크 (Drake, 1545~1596)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영국의 해적 출신
해군 제독

서인도 방면에 약탈원정을 감행했고 해상
무역을 파괴하기 위해 약탈선단을 인솔하고
태평양으로 진출. 영국함대 사령관으로 스
페인 무적함대를 선제공격하여 칼레 앞바다
에서 쳐부숨. 중국의 대해적 임도건과 같은
시기를 살았으나 선명히 대비되는 운명의
길을 감.

디아스 (Diaz, 1450~1500)

포르투갈의 항해가

서(西)아프리카 남안을 2척의 배
로 출범해 아프리카 남동쪽 끝을 지
나 케이프타운 남쪽 끝 케이프 포인
트를 발견한 후 '폭풍의 꽃' (희망
봉)이라고 명함. 조선의 최부와 같
은 시기를 살다 감.



